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시도지사協, 첫 미국NGA식 정책 콘퍼런스 개최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등 각각 일반세션 참여 공동선언문 채택 “지역 맞춤형 추진 지속가능 발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는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미국 전미주지사협회(NGA)의 연례 총회를 벤치마킹해 시·도지사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지역 아젠다를 실현할 비전을 제시하고 대국민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협의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기획됐다.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12개 시·도지사가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미주지사협회장, 일본전국지사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은 지역에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전미주지사협회처럼 중앙과 지방이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우리가 바라는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도지사의 경험과 지혜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의 새 길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콘퍼런스는 기초 세션과 3개 일반 세



10일 오후 서울 중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션으로 진행됐다. 생방송으로 6개 매체 (KBS·MBC·SB

S·YTN·MBN·CBS)에 동시 방영된 기초세션은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 절벽

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초세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회

장)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김태홍 충남지사(부회장)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부회장)는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첨단정책 테스트베드 조성', 김두겸 울산시장(감사)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정부'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2세션'에서 'AI와 미래모빌리티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기회도시 광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3세션'에서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이날 채택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 발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수기자

주철현,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유력

당 관계자 “호남 주철현·PK 송순호 검토” 10·16 재보선에 지선·대선 염두에 둔 포석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전남도당위원장·사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0일 국회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 지도부도 이 대표와 가까운 친밀계 의원을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이 대표와 가까운 친밀계 의원으로는 재선의 주철현 의원이 우선 꼽힌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도 “이재명 대표 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남’



은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 PK(부산경남)는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당의 ‘뒷발’인 호남과 ‘협지’인 PK(부산·경남) 지역 대표 인사를 지도부에 발탁해 양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재선인 주 의원은 여수갑이 지역구로, 대검찰청 공안2과

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차림 영·호남에 안배하려는 것은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뿐만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란 분석이다.

이번 재보선 지역 중 2곳은 영광과 곡성에서 치러지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등 이들 지역을 공략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 2명을 요충지에 나란히 배분한 것”이라며 “특히 PK의 경우 전략적인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새미래민주당 “진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

전병헌 대표 광주 찾아 “대한민국 정치 회초리 역할”

새로운미래에서 당명을 변경한 새미래민주당은 10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 일극 체제로 전락한 진짜 민주당을 대체할 진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새민주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민주당이 민주 세력 대통령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병헌 대표와 이미영·이근규·진해찬·정형호·서효영 최고위원, 남평호 사무총장, 김학실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병헌 대표는 “새미래민주당의 목표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종말적 정치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그래서 2027년 대선에서 민주세력의 승리를 견인하고 재집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이어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 중심으로 지지율을 5% 이상 끌어 올릴 것”이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정당, 국민참여 정당으로서 시대정신을 실천하겠다. 비록 원외정당이지만, 거대 양당이 무시하지 못할 존재감 있는 정당

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의 회초리 역할을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을 반드시 극복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면면히 이어지는 가치와 전통을 계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등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김두관 전 전남지사를 언급하며 “3총 3김이 모치면 민주진영은 더 강하고 포용력 있는 세력이 돼 이재명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대 정당의 지구당 제도 부활 논의를 두고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아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지키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잡해 부활 시간다면 국민과 함께 전국에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16 전남 영광·곡성 재선거와 이후 선거에 대해 전 대표는 “올해는 제2의 창당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성강기자

박균택 ‘대통령 친인척 비위 근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

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해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고분자로 만들어 슬랑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을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